

2014 8.03 연중 제 18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55,1-3 <와서 먹어라.>

제 2 독서 : 로마 8,35.37-39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복 음 : 마태오 14,13-21 <또는 13,24-3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하느님께서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말할 수 있는 선물,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선물이 과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차 동엽 신부님이 오시면 **“말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성공하고 입으로 망합니다. 또 입으로 사랑받고 입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너에게 열매를 먹게 해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무어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따서 주었다. 즉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잘못을 내탓이요! 내탓이요! 를 하지않고, 저놈 탓이요! 저놈탓이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결과는 무엇이나 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나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왜냐? 내 깊은 양심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려 합니다. 부정을 하다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입을 잘못 돌리기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고, 꺼안고 부둥켜안고, 모든 것을 나눌것 같던 그 이웃들이 가장 곁고려운 사람으로 변해 버립니다. 왜냐? “입” 입니다. “말” 입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을 전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미사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곳을 한번 다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인데,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컨 카운티보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때에 유다인이 나치치하 수용소에 갇혀서, 아마도 수백만명이라고 하지요? 험난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은 나치이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라는 곳은 어떻게 말하면 전체적인 수용소입니다. 가자지역 전체가 수용소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끼리도 서로 연락을 못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통제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정부가 이사람은 못나와! 하면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수용소 입니다. 그 안에 물자가 풍부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을 보호하려고 무참하게 지금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여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냐? 하면 오늘 제 2 독서의 말씀과 연결을 하여 볼수가 있습니다. 바오로사도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하느님으로 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고통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수록 하느님을 붙들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배가 고파도 하느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안에 하느님이 있지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과 나를 분리시키는게 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망이 나를 하느님으로 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나하면,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어냐 하면? 바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았을때에 자비심을 갖는것.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갖는것이 바로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000 년의 역사 뿐만아니라, 그들의 구약 성경을 주욱 읽어보면 자기자신들을 하느님하고 일치시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단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역할을 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3 년동안 공생활을 하실때에 무참하게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신것입니다. 요즘말로 아주 묵사발을 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제대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 결과가 수백만명을 하느님께로 이끎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을 한 번 잘 돌아 보십시오. 과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연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중에서 좀 뒤떨어지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더 해 주고 싶은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헤아려 보고 연민의 정을 갖고 나누어라! 네가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짓밟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사랑과 연민으로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래야만 우리안에 평화가 존재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텔아비브에 내리면 그렇게 살벌한 데가 없습니다. 입국과 출국하는 과정이 미국도 살벌하지만 텔아비브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돈, 무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보다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몇십배 더 위입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해요, 부자들이 늘 불안 한것 처럼, 자기것 가진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안한가?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한가? 그리고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정이 있는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냥 먹고 즐겨라! 하느님의 것을 먹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와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라 !”**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미사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과연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을 이웃을 볼때에 나만 살아야겠다는 그 모진 마음을 갖게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앞당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 미사중에 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와서 먹어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45(144),8-9.15-16.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5.37-39

형제 여러분,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7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3-21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13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1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17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19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